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2 주차 (롬 12:1~12:8)

(2016년 4월 8일 - 2018년 4월 14일)

(제5권 32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2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8년 4월 1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μ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τίξασθε τῷ αἵω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여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도가 선하고 기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의 틀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러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는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은 ‘카르디아!’ (하트(Heart))가 아니라 ‘누우스’ (생각 (thinking))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관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¹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9-10).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성도는 반드시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성도는 누구나 새 사람을 입었다. 결단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관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시 말해 세계관이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는 말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세상적인 교훈으로 읽게 되므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세계관이 변하면 성경을 본래 뜻 그대로 읽고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그들이다. 유대교에서 중시하는 것은 옳고 그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복과 저주 등인데 각 파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각각의 종파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정한 기준으로 바라 보았다. 바리새인들은 문둥병자를 의롭지 못한 자라 여겼고 에센파는 부정한 존재라 생각했다. 사두개파는 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받는 자로 생각했다. 한 사람을 놓고도 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종파마다 이렇게 다르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를 불의하거나, 부정

하거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자의 표본으로 제시된다.

우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이다.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이들은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역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마련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존의 세계관을 바꾸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복음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예수라는 프리즘,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다. 여기서 ‘변화하라’고 번역된 동사는 헬리어로 ‘메타모르포오’(μεταμορφόω)다. 이 단어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존재가 새로운 형태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형태를 버려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변화란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덧칠하거나 분칠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개구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자. 개구리 알은 자라면서 올챙이가 된다. 올챙이는 개구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다리는 없고 몸과 꼬리만 있다. 이상한 물고기같이 생겼다. 그리고 올챙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키며, 꼬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육지에서 살게 되면서 점차 아가미는 퇴화하고 허파로 숨을 쉰다. 더 이상 개구리는 올챙이가 아니다. 생긴 것뿐만 아니라 생존 방식도 전혀 다르다. 올챙이 때에는 꼬리로 헤엄치고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다 자라서 개구리가 되면 발로 헤엄치고 허파로 숨을 쉰다. 올챙이는 땅 위로 올라 올 수 없다. 올라오면 곧바로 죽게 된다. 하지만 개구리는 물속이든 육지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에서 올챙이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오’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실수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여전히 세상적 시각으로 이해하며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안수를 떠놓고 산신령께 빌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비슷한 방식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 비는 대상만 다를 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법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교회를 오래 다니던 분이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든 상관 없다. 변화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오직 현실의 문제만 보이고 그것에만 집착하게 된다.

바울은 성도라면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면한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드러야 할 예배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다. 성도들 대부분은 함께 모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걸 예배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로 변화하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믿고 난 이후에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2)

- ¹ 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μῶ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παραισῆ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너희 몸을 세우라)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 ² καὶ μὴ συσηματίξα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도는 올챙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생각,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 자신이 만나는 일상을 예배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삶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성도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도가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실제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선하고, 기뻐할만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비쁘다. 독자들 중에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지 다른 이들은 모를 거라며 눈물 흘릴 분들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분을 떠나겠다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은 있게 마련이다. 필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분들은 말 못할 고통으로 잠못 이룰 때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만신창이로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고, 이게 정말 선하고 기뻐할만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나고 물어 온다면 내겐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용기가 없다. 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막상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런 분들에게 차마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유토피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삶의 문제들이 닥쳐온다. 성도들도 다른 이들과처럼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산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꼬인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를 쓴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려면 먼저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 이 현실이 괴로우니 하루라도 빨리 이 현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다. ‘하나님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

믿음이란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만큼 믿음은 성숙해간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일부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가난을 택하기도 했다. 사실 현실적인 결핍을 인식하면 할수록 고난은 점점 더 커진다. 배우자 간의 사랑의 결핍은 갈등을 낳고 심지어 헤어지는 경우까지 생긴다. 부모자식간의 사랑의 결핍도 마찬가지다. 부의 결핍, 힘의 결핍, 자존감의 결핍 등은 사람들을 항상 힘들게 한다. 결핍을 더 크게 인식하느냐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극단적 결핍, 십자가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신 분이다. 예수님이라고 수치심을 못 느끼거나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셨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와 고통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이다. 우리에게 본질적 변화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 것도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란 세상의 틀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옷 입은 존재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 없지만 우리가 살아 온 틀을 버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들과는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세상적인 사고의 틀을 버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것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입증하다’라는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만하며 온전하시다. 그리고 이 사실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 있다. 세상적으로 유익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했던 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그 사실을 알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모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처세술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1)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3)

- ³ Λέγω γὰρ διὰ τῆς χάριτος τῆς δοθείσης μοι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말한다)
παντὶ τῶ ὄντι ἐν ὑμῖν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μὴ ὑπερφρονεῖν παρ' ὃ δεῖ φρονεῖν (생각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말라)
ἀλλὰ φρονεῖν εἰς τὸ σωφρονεῖν, (진지한 판단을 할 정도만 생각하라)
εἰκόστω ὡς ὁ θεὸς ἐμέρισεν μέτρον πίστεως.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최근 들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교회에 들어 오면서 목사가 교회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도 스스로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한다.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들을 내려 놓는 건 아니다. 반대로 수많은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길 수도 없다. 섬김이란 그야말로 권한이 없는 종의 위치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번트라는 말과 리더십이라는 말은 절대로 함께 쓰일 수 없다. 서번트에게는 결코 리더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리더는 절대 서번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제 종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역사적으로 목회자에게 수많은 권력들을 부여해왔고 그것이 고착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교회에서 직분에 높낮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회자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으로 평신도라는 말이 생긴 것도 아니다. 목회자건 평신도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성도일 뿐이다. 절대로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은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모임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들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세상 조직처럼 수직적 지배 구조를 갖고 상명하복이 당연시되는 데가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이 성도가 드리는 예배다. 예를 들어 목사인 필자는 성경의 내용을 연구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자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목사의 일만 하면 된다. 성도 개개인도 자신에게 나누어 준 은사를 따라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능력있는 한 사람이 이것 저것 전부 다 간섭하면 안 된다. 교회는 사회와 달라서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주어진 일들을 톱니바퀴처럼 착착 해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로마서는 하나의 긴 편지다. 한줄 한줄이 각각 의미가 있지만 또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성도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구원에 머물기 위해 구원의 의미를 반복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하지만 구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머물며 성도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로마서 12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과 그에 따른 삶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12장은 교회의 사역과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배란 매순간 순간의 삶 그 자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도 사실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의 한 부분이다. 사역을 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역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오늘의 본문 중 3절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다. 먼저 3절을 읽어보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이자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권면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권면이다. 여기엔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다. 분명 자신이 내용과 관련되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처럼 말하는 화법이다.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화법인데 교회에서도 흔히 쓰인다. 목사들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체이탈 화법을 즐겨 쓰게 된다. 예를 들어 설교 중에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랑을 받는 쪽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쪽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유체이탈 화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도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묵묵히 이행하면 교회는 온전해진다. 삶 속에서의 예배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 누구의 상관이 되어서 상명하달식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구조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요즈음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세상의 조직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다. 그 결과 교회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보다는 점점 세상 조직과 다름없이 변해가고 있다. 게다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직분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데 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 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성도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조직화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더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다.

목상을 위한 질문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당신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2)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3)

- ³ Λέγω γὰρ διὰ τῆς χάριτος τῆς δοθείσης μοι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말한다)
παντὶ τῶ ὄντι ἐν ὑμῖν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μὴ ὑπερφρονεῖν παρ' ὃ δεῖ φρονεῖν (생각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말라)
ἀλλὰ φρονεῖν εἰς τὸ σωφρονεῖν, (진지한 판단을 할 정도만 생각하라)
εἰκάστω ὡς ὁ θεὸς ἐμέρισε ἐν μέτρον πίστεως.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이 한 권면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나 능력 밖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라는 말이다. 사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언뜻 와닿지 않는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부분을 헬리어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다.

μὴ ὑπερφρονεῖν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παρ' ὃ δεῖ φρονεῖν (필요한 생각보다)
ἀλλὰ φρονεῖν (생각하라)
εἰς τὸ σωφρονεῖν, (신중하게, 콘트롤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εἰκάστω ὡς ὁ θεὸς ἐμέρισε ἐν μέτρον πίστεως.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성경에 세 번이나 ‘생각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동사는 ‘프로네오’ (φρονέω)다.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사고’라기 보다는 ‘개인적 판단’에 더 가깝다.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에는 ‘후페르’(ὑπερ)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다. 이는 자신이 피력할 수 있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면 판단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한 밖에 일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인데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다.

교회는 세상 직분을 옮겨 놓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맡겨진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행하기만 하면 된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간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일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교회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행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 인간들을 서열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되기를 원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일이 좀 지체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는 능력이나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당연히 계급이 있을 리도 없고 소위 짬밥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다.

교회 일을 하다보면 때론 일의 경중을 따질 때가 있다. 주일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주일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설교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의 핵심 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¹¹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¹²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는 없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선지자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직분이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할 일이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복음 전도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목사다. 목사는 목자라는 뜻이지 필자와 같이 인수를 받은 목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교자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에 가깝다. 초대 교회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는가?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목사, 제왕적 목사는 당시에는 없었다. 여기서 목자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성도를 돌보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목자의 헬리어 원어는 ‘포이메노스’(ποιμένοσ)인데 이 단어는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뜻으로 현대의 목사와는 다른 직분이다. 초대 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목자는 오늘날의 목사보다는 오히려 장로에 가까웠다.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신약 최초로 복음을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 랍비가 히브리어라면 헬리어는 ‘디다스칼로스’(διδάσκαλος)다. 당시 랍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이상을 뜻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였고, 당시 선생과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았다. 따라서 교사란 단지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 이상의 일을 하는 자다. 성도들의 생각의 틀을 세우는 건 물론이고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 것이다.

오늘날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이 ‘목사’라는 한 직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한 직분에 모든 사역이 집중되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왜곡되기 쉽다. 한 직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엔 피라미드 구조의 비성경적 조직 체계를 갖게 된다. 이 외에도 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교회 일에는 경중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중요하다. 설교하는 목사나 찬양을 담당하는 자나, 식사를 준비하는 자나 모두가 소중한 자들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각자 맡은 일을 서로 비교하며 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사역을 판단하지 말길 바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각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역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위해 진지하게 판단하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3~5)

- ³ Λέγω γὰρ διὰ τῆς χάριτος τῆς δοθείσης μοι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말한다)
παντὶ τῶ ὄντι ἐν ὑμῖν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μὴ ὑπερφρονεῖν παρ' ὃ δεῖ φρονεῖν (생각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ἀλλὰ φρονεῖν εἰς τὸ σωφρονεῖν, (진지한 판단을 할 정도만 생각하라)
ἐκάστῳ ὡς ὁ θεὸς ἐμέρισεν μέτρον πίστεως.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 만큼)
- ⁴ καθότι γὰρ ἐν εὐσέμεισιν πολλὰ μέλη ἔχομεν,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같이)
τὰ δὲ μέλη πάντα οὐ τὴν αὐτὴν ἔχει πράξιν,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 ⁵ οὕτως οἱ πολλοὶ ἐν σώματι ἔσμεν ἐν Χριστῷ,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τὸ δὲ καθ' εἷς ἀλλήλων μέλη. (그리고 서로 서로 지체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도는 사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그 의견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헬라이어 ‘소페로네오’(σωφρονέω)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타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내 눈에 물대기라는 뜻이다. 옛날 어디에 계단식 눈이 있었는데 윗쪽 눈과 아랫쪽 눈의 주인이 서로 달랐다. 윗눈의 주인이 매일 자기 눈에 물을 채웠다. 그런데 매번 다음 날이면 눈에 물이 말라있는 것이다. 그는 범인을 잡으려고 밤에 몰래 나가 보았다. 잘 살펴보니 아랫눈의 주인이 밤마다 와서 윗눈과 아랫눈 사이에 물고를 만들어서 윗눈의 물을 자기 눈으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사실의 전모를 알게 된 윗눈의 주인이 화가 나서 왜 우리 눈에 있는 물을 당신 눈으로 빼돌리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랫눈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눈에 물을 대는데 당신이 왜 화를 내느냐?” 자기 눈에 물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암체족들이 의외로 많다. 나만 이익이면 되고 나만 존중 받으면 되지 남의 일은 어떻게 되는 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시는 사람들이다. 무슨 일이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실속만 차리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성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¹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²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³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1-4).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사랑조차 면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그 내용물이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밖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의 사역과 직분을 존중하고 돕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사랑이다. 때론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사랑할만한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수준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믿음의 수준은 측량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성도 개개인의 사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자신이 고민해야 할 범위, 생각해야 할 범위를 뜻한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을, 찬양 사역자는 찬양과 관계된 것을,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은 음식에 관계된 부분을 담당한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가 지체고 두 번째가 은사다. 오늘의 본문 4-5절을 보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⁵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

성도는 몸의 지체이고 서로 다른 직분을 가졌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고 상호 간섭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가 담당한 대로 움직이면 된다. 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섭할 권한이 없다. 담임 목사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얼굴에는 입, 귀, 눈, 코가 있고 몸에는 팔과 다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몸의 장기까지 치면 이루 셀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 개념이다. 눈으로 말할 수 없고 귀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코로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볼 수도 없다. 각기 맡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분이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결코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입으로 먹는다. 눈으로는 음식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으며, 손으로는 수저를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입으로 음식을 씹어 식도를 통해 위로 보낸다. 위와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를 하고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는 온 몸으로 보내지고 필요한만큼 나누어진다. 그게 몸이고 그게 지체다. 지체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 봉사하게 돼 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손과 팔, 눈, 코, 입이 동원되고 내장의 모든 소화 기관이 동원된다. 그런데 그 혜택은 누가 받는가? 식사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지체들까지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다. 두 다리로 열심히 걸었을 뿐인데도 온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각 성도를 지체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목상을 위한 질문

성도로서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예언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4~8)

- ⁶ ἔχοντες δὲ χαρίσματα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κατὰ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αν ἡμῖν διάφορα, (우리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신 은혜를 따라)
εἴτε προφητείαν κατὰ τὴν ἀναλογία τῆς πίστεως, (혹 믿음의 규모를 따라 예언을)
- ⁷ εἴτε διακονίαν ἐν τῇ διακονίᾳ, (혹 섬김 안에서 봉사들)
εἴτε ὁ διδάσκων ἐν τῇ διδασκαλίᾳ, (혹 가르침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 ⁸ εἴτε ὁ παρακαλῶν ἐν τῇ παρακλήσει· (혹 위로 안에서 위로함들)
ὁ μεταδιδούς ἐν ἀπλότητ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ὁ προϊστάμενος ἐν σπουδῇ,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ὁ ἔλεων ἐν ἰλαρότητι.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성도의 공동체다.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는 것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뒤쳐지는 지체가 있으면 능력이 많은 지체가 조용히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다른 이들이 다 알도록 시끄럽게 간섭하거나 핀잔 주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 위장이 좀 약하면 입에서 좀 더 많이 씹어서 보내 주면 된다. 입이 고생하면 위장의 부담이 훨씬 덜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지체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도 아니다.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다 보면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의식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사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 6~8절을 읽어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⁷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⁸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규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6-8).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재능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능이 인간의 언어라면 은사는 하나님의 언어다. 예언이 재능은 아니다. 이 또한 노력으로 같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니 자랑할 수도 없다.

교회에서의 사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주차 관리에 관련한 배태량이다. 하지만 이분이 교회에 와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는 분이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할 수도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밖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이 교회에서는 회계를 맡을 수도 있고, 밖에서 회계를 하는 분이 교회에서는 핸디맨이 될 수도 있다. 밖에서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주방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로 일곱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다스림, 공홀인데 이 일곱 가지는 서로 다른 은사다. 은사가 다르기에 사역도 당연히 다르다.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일곱 가지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첫째, 예언이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어찌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전하니 예언하는 자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 말해야 한다. 은연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도 안 된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해서 전달하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그것이 예언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22).

사정이 딱한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싶은 건 비단 목회자들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말기 암환자를 만나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미리 장례식 준비를 해 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분에게 그들의 불안과 초초함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잠시 위로가 될 지는 몰라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박한 죽음이 눈 앞에 닥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치유와 회복을 장담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예언은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잘 되는 사람에게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다.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위로해 주며 그 고통 가운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다.

역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고치려 하지도 말고, 역지로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말고, 역지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대책없이 희망만 주는 것은 가짜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무책임한 위로의 말도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예언자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다. 예언은 점쟁이처럼 그럴 듯한 말로 미래를 말하는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은 사람의 마음도 아는 법이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목상을 위한 질문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4~8)

- ⁶ ἔχοντες δὲ χαρίσματα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κατὰ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αν ἡμῖν διάφορα, (우리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신 은혜를 따라)
εἴτε προφητείαν κατὰ τὴν ἀναλογίαν τῆς πίστεως, (혹 믿음의 규모를 따라 예언을)
⁷ εἴτε διακονίαν ἐν τῇ διακονίᾳ, (혹 섬김 안에서 봉사들)
εἴτε ὁ διδάσκων ἐν τῇ διδασκαλίᾳ, (혹 가르침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⁸ εἴτε ὁ παρακαλῶν ἐν τῇ παρακλήσει· (혹 위로 안에서 위로함을)
ὁ μεταδιδούς ἐν ἀπλότη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ὁ προϊστάμενος ἐν σπουδῇ,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ὁ ἔλεων ἐν ἰλαρότηι.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믿음의 규모를 따라 예언을 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내친 김에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체들에 대해서도 권면을 한다. 그 두 번째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섬기는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다.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세요! 그게 전부다. 어떠한 시족도 없다. 섬기는 자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섬기는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 그런 사람은 섬김에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섬기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일이어도 이를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한 선한 일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자기가 그 일에서 빠지기라도 하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 본다. 그러다가 생각과 달리 일이 잘 돌아가면 괜히 씩씩해 하고 반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면 겉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좋아하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바울은 섬김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했다. 무엇이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어떠한 시족도 붙이지 않았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예배하라! 그것이 전부다. 불평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세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일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은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고 진리 안에서 세우는데 힘을 쏟는 게 그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인 제자 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읽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넷째, 교회 내에는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권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권위보다는 권면이

본래 뜻에 더 어울리는 단어가 생각된다. 권면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괜찮다고 이야기 해주는 일을 한다.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서 파생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혜사’다. ‘위로자’라는 말이다. 두려워하는 성도를 안심시키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실수를 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권면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서 그런 행동을 고쳐주는 행동 교정 치료소가 아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 그 자체가 교회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주시지 않았다.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위로나 권면은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는 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다.

다음으로 언급된 교회의 사역은 구제다. 구제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성경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성실함의 미덕을 갖추라고 권한다. 성실하다는 말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아우르는 말이다. 구제와 정직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나 이벤트식의 일회적인 사역은 진실된 구제가 아니다. 구제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칭찬을 챙기는 것도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 일년에 한 번 특별한 날 하는 봉사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구제 사역이 아니다. 구제는 연속적이어야지 중간에 끊기면 안된다. 우리에게는 어쩌다 한 번 하는 사역일지 몰라도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단 한 번의 구제 사역으로는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는 이벤트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항상 행해야 하는 필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여섯 번째로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사역은 다스림이다. 다스리는 자는 그야말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스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부지런함이다. 다스리는 자는 앉아서 누군가의 보고를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 다스리는 사람은 헬리어로 가장 앞서서 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다스림이란 자신이 직접 발벗고 앞장 서서 그 일에 뛰어 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비전을 갖고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다스리는 자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앞장 서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은 즐거움과 기쁨이다. 긍휼 사역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베품을 받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일해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다. 특히 긍휼 사역은 자신이 먼저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긍휼 사역을 할 때 상대에게 절대로 부채 의식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 기꺼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되 절대로 마음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배려해야 한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다. 자신이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행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